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		
배포일	2023. 2. 21.(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글로벌사회공헌단	문의	임은경(880-2989)

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, 학생사회공헌단 못난이 농산물 활용 프로그램 성료

-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학생사회공헌단 ‘어글리컬처’ 팀은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.
-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글리컬처 팀은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환경과 농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했다.
- 우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으로, 교내외 카페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기간 한정 메뉴를 출시하고 홍보했다. 서울대 생활협동조합과 협업하여, 교내 카페 ‘느티나무’ 에서 못난이 딸기를 활용한 음료 및 와플 메뉴를 판매하며 못난이 농산물의 활용법을 제시했다. 교외에서는 사회적 기업 안테나에서 운영하는 ‘카페앤밀 치포리’ 와 협업해 못난이 당근과 양파를 활용한 메뉴를 판매하고, 수익금의 7%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.
- 또한, 단원들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‘건강주스 요리교실’ 을 열어, 버려지는 농산물이 모양만 다를 뿐 맛은 똑같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

다. 아동들은 못난이 농산물을 직접 만지고 다듬어 보며 다채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.

- 아울러, 어글리컬처 팀원들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조리실을 활용하여, ‘못난이 버섯 샤부샤부 밀키트’를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하며, 못난이 농산물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.
-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“못난이 농산물이 그저 외형 문제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지 몰랐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어글리컬처 팀은 이처럼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못난이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-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 창설된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, 사회적 책임성과 혁신적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해오고 있다. 학생사회공헌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사회서비스센터(880-2253) 또는 글로벌사회공헌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

[사진 1] 못난이 딸기를 활용한 음료 및 와플 메뉴사진



[사진 2] 밀키트 사진

